호국불교 상징 '김윤후 승장' 도로명판 제막

용인시, 12월 18일 제막식
봉명리–서리 13km 구간
처인성 역사 지속 발굴 계획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고려 시대 대몽항쟁 전승지인 처인성(處仁城)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스님을 기리는 명예 도로명판이 세워졌다.

용인시는 12월 18일 처인성 역사교육관 앞 도로에서 '김윤후 승장로'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섭 전 국회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 등 지역기관장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용인시는 해당 도로 구간에 총 8개의 명예도로명판을 설치했으며, '김윤후 승장로'는 남사읍 봉명리에서 이동읍 서리까지 약 13km 구간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처인성의 역사적 의미를 후세에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12월 18일 처인성 역사교육관 앞 도로에서 '김윤후 승장로'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호국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는 명예도로 운영을 통해 처인성 일대를 중심으로 호국불교문화 콘텐츠를 지속 발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광 대종사는 "용인이 산업도시가 아닌 문화도시로 성장해야 하고 그 중심에 김윤후 스님이 있다"며 "명예도로 지정이 처인성의 역사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역사적 현장을 보존·활용하는 일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교육적 가치 제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예도로 지정을 발의했던 전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 법경 스님은 "용인 역사문화의 상징은 처인성이고 처인성의 시작은 김윤후 스님"이라며 "앞으로 처인성에 김윤후 스님을 기리는 기념전각 조성 등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신도회는 지난해 6월 처인성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김윤후 승장 선양사업을 위해 '김윤후 승장로' 도로명 부여를 시에 건의했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용인시는 이전에도 김대건 신부의 이름을 딴 '청년김대건길' 등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지역 역사 인물을 기리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해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는 "처인성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유적이며 현재 보존·정비를 통해 방문자에게 개방되고 있다"면서 "'김윤후 승장로'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호국의 뜻을 기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 정인사, 제4기 불교대학 수료식

124명 수료 · 22명 개근



창원 정인사(주지 원행 스님)가 12월 23일 교육관 2층에서 제4기 불교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수료식에서는 보시반 21명, 지계반 20명, 인욕반 21명, 정진반 21명, 선정반 20명, 지혜반 21명 등 6개 반에서 공부한 12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1년간 성실히 출석하며 정진한 수료생 22명에게는 개근상이 수여됐다.

불교대학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성실히 출석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수료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불교대학에서 배운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를 줄이고 남을 배려하는 보살행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산 신흥사 대광전·벽화' 조명 학술대회

12월 19일 양산문화회관서



양산 신흥사(주지 호법 스님)는 12월 19일 양산 예술문화회관에서 '조선 후기 사찰 공간과 불교미술의 종합적 이해와 국가유산으로서의 보존·계승 방안 모색'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대회는 대광전과 벽화의 역사·예술적 가치를 건축·불상·회화·의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본질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호법 스님은 개회사에서 "대광전과 벽화에는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회화적 성취, 수행과 교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며 "문화유산의 가치는 형상 보존을 넘어 그 안에 깃든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 이번 논의가 불교문화유산의 미래 계승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신흥사 회주 영규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양산불교연합회회장 동진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전주에코시티 전법도량 건립한다

12월 19일 교구종회서 결의
새해 예산안, 사업 계획 승인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불기 2569년도 제2차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12월 19일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교구종회는 성원보고에 이어 2026년 교구예산 승인의 건, 전주포교당 건립의 건, 2026년 분담금 배정의 건, 기타 교구운영의 건을 일괄 상정해 토의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26년도 교구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주에코시티 전법도량 건립불사에 교구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전주에코시티 전법도량 불사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문복지회, '어울림 밤'으로 20주년 회향

12월 23일 500여 명 한자리
장기근속 · 우수종사자 표창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가 2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한 해를 회향하는 '2025 보문복지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 밤'을 12월 23일 여수 디오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사진〉

향일암과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는 '보문이 걸어온 길 20년, 미래복지를 선도하는 보문'을 주제로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와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산하 시설장과 담당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연규 스님은 '이십주년' 사행시로 대신한 인사말에서 "이웃의 웃음과 눈물이 곧 우리의 일이 되었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시간들이 오늘날 보문복지회를 만들었다"며 "지난 20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었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앞으로의 길도 함께 걸어가자"고 감사와 발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0년 장기근속자 구미정·김산·최점순·조기임·박현숙·안경숙·이수형·전경희·사사기·미유기 씨와 20년 장기근속자 김양자·함유진 씨에게 감사패와 황금열쇠가 전달됐다. 우수종사자 오은채·이미건·손우정 씨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보문복지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피앤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천NCC, 적십자 디딤돌, 여량산악회에는 감사패가, 김영곤·김수진·정병환 씨에게는 감사장이 각각 전달됐다.

장기간 헌신한 종사자에게 수여되는 '보문 장수공로상'은 곽성준·배호연·임혜숙·김나옥·황인숙·서진자 씨에게 돌아갔다. 보문 최고상은 법인을 이끌며 헌신해 온 연규 스님에게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수여됐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축사를 통해 "보문복지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해 왔다"며 "기관과 후원자, 직원이 어우러진 선근 인연공덕의 회향처로서 앞으로도 백년복지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보문복지회는 2005년 9월 설립 됐으며, 장기요양·재가·자활·아동쉼터·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벽선암, 13년째 동지 팥죽 나눔

12월 21일, 호계역 일원서
시민에 팥죽 3000그릇 나눠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 스님)이 올해로 13년째 동지 팥죽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벽선암은 12월 21일 울산 호계역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동지 팥죽 3000인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사)야단법석이 주최하고 울산 북구청과 벽선암 신도회가 후원한 이날 팥죽 나눔에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동지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주지 혜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나눈 팥죽 한 그릇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발원이 모든 액운을 물리치고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은 "13년 동안 한결같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온 벽선암과 (사)야단법석,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정대행)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원로원장 혜윤 조허(금강사)
종회의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규정원장 일초(상주 연화사)
고시원장 자혜 수봉(대광사)
호법원장 덕현(성현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 화 원 장 일락(중산정사)
총무부원장 선행
포교부원장 혜원
교육부원장 법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